

2015 / 11 / 30 (MON)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1%대 상승.  
 내달 3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발표될 것이라 기대감에 투심 호전.  
 게임주가 2.1%, IT서비스 업종이 1.5% 상승  
 하며 가장 두드러졌고 소프트웨어 업종은  
 강보합 마감.  
 수급측면에서는 외인의 매수세로 엔씨소프  
 트, SK, 인피니트헬스케어 강세. 반면 외인  
 의 매도세로 슈프리마 약세  
 종목별로는 신작 PC 온라인 게임 MXM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씨소프트가 3.7% 상승  
 마감.

###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39.64	-0.2%	-10.3%	-230 억	-386 억
(코) 인터넷	19,204.39	2.5%	0.7%	93 억	49 억
(코) IT S/W&SVC	2,075.75	1.1%	3.8%	74 억	43 억
(코) 소프트웨어	303.71	0.2%	23.8%	11 억	-4 억

###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43	-0.1%	4.4%
MSCI Internet	196.61	-0.1%	28.7%
MSCI IT Services	124.98	0.2%	6.1%
MSCI Software	181.59	0.1%	11.0%

###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2,000	-0.2%	-11.2%	26 억	44 억
카카오	116,100	3.4%	-6.1%	99 억	49 억
한국사이버결제	26,550	3.5%	-0.6%	-5 억	-10 억
KG이니시스	15,600	1.3%	-12.8%	9 억	0 억
KG모빌리언스	13,400	1.1%	-7.9%	1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1,600	0.0%	92.9%	0 억	0 억
KTH	8,940	0.6%	16.9%	1 억	0 억
아프리카TV	25,750	-3.0%	-3.7%	0 억	-2 억
SK컴즈	6,560	-1.4%	-1.4%	0 억	0 억
KT뮤직	4,695	-0.7%	-12.9%	0 억	0 억
다날	9,320	-1.6%	15.1%	-1 억	#N/A
예스24	9,800	-0.8%	40.6%	-1 억	0 억

###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771.97	0.4%	45.5%
Facebook	105.45	0.0%	35.2%
Tencent	153.20	-1.6%	36.2%
Baidu	205.58	1.9%	-9.8%
Yahoo	32.94	-0.7%	-34.8%
LinkedIn	244.59	-0.4%	6.5%
Twitter	25.75	-1.2%	-28.2%
Weibo	17.87	-3.5%	25.5%
SINA	49.55	-2.9%	32.5%

###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4,500	0.8%	-9.9%	20 억	28 억
SK	276,000	2.6%	29.3%	127 억	-100 억
다우기술	23,950	-0.8%	100.4%	-10 억	2 억
포스코 ICT	4,835	-1.4%	-8.8%	0 억	-2 억
신세계 I&C	108,500	-0.9%	-3.1%	-1 억	-1 억
동부	5,090	0.0%	102.8%	0 억	#N/A

###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38.46	0.3%	-13.7%
TCS	2,353.35	0.3%	-8.0%
Accenture	107.46	0.3%	20.3%
HP	12.61	-0.2%	-68.6%
Infosys	1,066.35	1.3%	8.1%
Wipro	569.95	0.1%	2.7%
NTT Data	6,030	-0.7%	33.6%
Fujitsu	626.00	0.1%	-2.8%
CSC	68.62	-1.2%	8.8%

###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SK	127 억	웹젠	-12 억
카카오	99 억	더존비즈온	-10 억
NAVER	26 억	다우기술	-10 억
엔씨소프트	20 억	게임빌	-7 억
삼성에스디에	20 억	아이크래프트	-6 억
NHN엔터	16 억	슈프리마	-6 억
위메이드	11 억	한국사이버결	-5 억
KG이니시스	9 억	지트리비엔티	-4 억
디지털조선	5 억	처음앤씨	-3 억
한국정보인증	4 억	유비케어	-3 억
인피니트헬스	3 억	바른손이앤에	-3 억
대아티아이	2 억	넥슨지티	-3 억
골프존	2 억	민앤지	-2 억
비트컴퓨터	2 억	파티게임즈	-2 억
컴투스	2 억	네오위즈게임	-2 억

###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24,000	3.7%	23.1%	20 억	32 억
EA	112,300	-1.1%	-6.8%	2 억	11 억
NHN엔터테인먼트	58,700	0.5%	-30.6%	16 억	8 억
웹젠	24,500	4.0%	-15.7%	-12 억	-2 억
위메이드	36,100	2.7%	-4.5%	11 억	-3 억
선데이토즈	13,050	3.6%	-24.1%	0 억	4 억
액토즈소프트	31,550	-1.4%	-5.8%	0 억	-3 억
게임빌	80,000	-0.5%	-33.7%	-7 억	3 억
네오위즈게임즈	16,250	1.2%	-28.6%	-2 억	-2 억
넥슨지티	12,800	2.4%	0.4%	-3 억	0 억
데브시스템즈	26,900	1.5%	-43.7%	0 억	0 억
조이시티	30,200	-0.2%	49.5%	-1 억	0 억
파티게임즈	15,200	8.6%	-41.7%	-2 억	-17 억
조이맥스	15,700	-0.9%	-42.5%	-1 억	0 억
한빛소프트	7,190	0.1%	24.2%	0 억	0 억
와이드온라인	6,590	-0.8%	42.6%	-1 억	0 억

### Games

	close	1D	YTD
Nintendo	19,230	-2.3%	52.6%
EA	68.88	-0.9%	46.5%
Blizzard	37.24	0.0%	84.8%
NEXON	1,961	-1.2%	74.3%
NAMCO	2,784	-0.7%	8.6%
King	17.67	-0.2%	15.0%
Konami	2,960	-1.5%	33.3%
Square Enix	2,901	-0.5%	15.7%
GungHo	391	-1.5%	-11.3%
DeNA	1,962	-1.4%	35.7%
Sega	1,352	-1.1%	-13.1%
Take-Two	35.69	0.2%	27.3%
Zynga	2.62	0.8%	-1.5%
Ubisoft	26.61	-0.5%	75.4%
Gree	611	-0.5%	-15.6%
Changyou	22.04	-2.1%	-19.4%

###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카카오	49 억	SK	-100 억
NAVER	44 억	파티게임즈	-17 억
엔씨소프트	32 억	한국사이버결	-10 억
삼성에스디에	28 억	골프존	-9 억
민앤지	22 억	한국정보인증	-8 억
더존비즈온	17 억	지트리비엔티	-6 억
컴투스	11 억	액토즈소프트	-3 억
NHN엔터	8 억	위메이드	-3 억
한글과컴퓨터	5 억	웹젠	-2 억
아이크래프트	5 억	네오위즈게임	-2 억
선데이토즈	4 억	포스코 ICT	-2 억
게임빌	3 억	아프리카TV	-2 억
케이사인	2 억	코나아이	-1 억
안랩	2 억	신세계 I&C	-1 억
바른손이앤에	2 억	MDS테크	-1 억

###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4,550	-0.6%	2.5%	0 억	-1 억
더존비즈온	22,950	0.9%	146.8%	-10 억	17 억
한글과컴퓨터	22,150	1.4%	9.7%	0 억	5 억
골프존	94,100	0.4%	272.7%	2 억	-9 억
안랩	43,500	0.9%	20.8%	1 억	2 억
한국정보인증	13,550	-3.2%	289.9%	4 억	-8 억
슈프리마	18,500	-3.4%	-27.3%	-6 억	0 억
갤럭시아컴즈	5,690	0.0%	110.0%	0 억	#N/A
지트리비엔티	14,750	3.5%	327.5%	-4 억	-6 억
MDS테크	22,600	-0.9%	9.2%	0 억	-1 억
오상자이엘	10,550	-1.9%	-20.7%	0 억	#N/A
인피니트헬스케어	10,250	2.0%	41.6%	3 억	1 억
케이사인	3,040	1.5%	23.6%	1 억	2 억

###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53.93	0.4%	16.1%
Oracle	39.18	-0.2%	-12.9%
SAP	79.05	0.1%	13.5%
EMC	25.40	-0.1%	-14.6%
Salesforce	79.97	-0.5%	34.8%
Adobe	92.17	0.4%	26.8%
Vmware	60.45	0.8%	-26.7%
Intuit	100.18	0.3%	8.7%
Symantec	19.50	-1.8%	-24.0%
CA	28.20	0.4%	-7.4%
Citrix	76.85	0.6%	20.5%
Autodesk	63.05	0.2%	5.0%
Synopsys	50.47	1.4%	16.1%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혁신'보다 '안정' 택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2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2016년 중 새로운 은행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의 첫 신규 은행업 인가라는 점과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사업계획 면에서 차별화를 부각하는 데는 각 컨소시엄이 이렇다할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K뱅크는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1만4000개의 오피라인 채널, 디지털 이자, 편리한 지급결제를 강점으로 내세웠으며 아이뱅크는 빅데이터 중금리 대출, 자산관리, 지급결제를 차별화 요인으로 부각시켰다.

카카오뱅크도 공동발기인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카카오스코어' 신용 평가 모델,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를 통한 맞춤형 금리제도, 24 시간 고객의 문의에 답하는 '금융봇' 등을 내세워 3개 컨소시엄간 혁신성 면에서 큰 차별화는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비인가를 내준 근거로 "한국카카오은행은 사업초기 기반 구축이 용이하다고 평가돼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케이뱅크는 참여주주 역할을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을 이용,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설명만으로 본다면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평가에 있어선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은행의 강점으로 풀이된 가입자 기반의 사업 안정성과 케이뱅크의 막강한 고객접점의 경우 혁신적이라기 보다는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강점에 해당한다. 특히 아이뱅크 컨소시엄이 이번 예비인가에 탈락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을 거론했지만 이는 기존 금융사들의 대출 등 금융서비스 시각에서 금융당국이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지적도 나온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기존 금융사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금융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치면서 2단계로 추진될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차례 사업 참가를 보류한 500V 컨소시엄도 당초 소상공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 등을 내세운 만큼 2차 인가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금융당국은 이번 1차 인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은행법 완화 및 은산분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자체가 기존 은행시장 구도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점에는 업계가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인이 과정을 통해 전개될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이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은 30일 오전 9시30분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별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구체적인 은행업 영위를 위한 사업 계획 및 로드맵 등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인터넷전문은행 IT비용 절감방안, 현실성 있다**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2곳을 선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의 IT인프라 골격 구성과 운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위원단을 대상으로 한 제안설명회에서 제시한 IT비용 절감 방향상에 눈길을 모아진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측이 제시한 이같은 혁신적인 IT절감 해법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비록 오픈소스 기반의 저가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은행의 업무시스템으로 활용하기위한 SI 과정과 커스터 마이징의 부분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차세대시스템을 추진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이 자바 인력을 충분히 수혈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솔루션의 도입보다는 IT인력난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단위업무시스템을 개발시 패키지 기반의 솔루션 도입과 개발(인건비), 유지보수 및 고도화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전체적인 비용구조를 보면 패키지가 차지하는 영역은 극히 적다. 케이뱅크측은 오픈API를 통한 저렴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전체의 IT 인프라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한편 카카오뱅크측은 기존 금융권이 ERP(전사적자원관리), CRM(고객관계관리) 시스템 등 BI(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 부문에서도 고가의 패키지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내부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개발, 자체 업그레이드'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비용 구조의 BI 시스템 개발비 극복 대안으로 '내부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통한 자체 개발 및 업그레이드'로 제시한 것은 역시 아직까지는 모호하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있어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이 요구되는 여신시스템의 경우만 하더라도 신용평점시스템, 리스크관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여신시스템 체계 자체가 상당한 복잡하고 영역이 세분화돼있다.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분석의 영역도 물론 필요하지만 프로세스 중심의 여신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도 계정계(여신, 수신, 외환), 정보계 시스템을 축으로하는 IT인프라는 기존 은행권과 유사하게 갖춰야 한다. 금융IT 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 은행 IT인프라를 수월하게 될 경우, 인건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기존 은행권처럼 자체 IT운영 인력을 50% 이상 가져가야 한다. 때문에 IT아웃소싱을 통한 IT비용절감 부분도 현재로서는 제한적.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IT인프라 구축 비용과 관련, 아직까지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초기 IT인프라 구축 비용은 대략 1000억원~3000억원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IT장비의 도입 및 각종 업무시스템의 개발, 고강도 보안 시스템 구현, IT인력의 확충 등 기본적으로 구성요소 외에 완전한 비대면채널로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해야하는 특성상 IT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IT비용의 산출 방식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News & Issue
--------	----	----	----------	--------------

국내 SK 2.6% 최근이슈 SK, 내년 경영화두 'M&A 통한 집중화'

올해 SK와 SK C&C를 합병해 기존 옥상옥 구조를 해소하고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한 SK는 통합 사업주회사를 컨트롤타워로 내년에도 반도체, 에너지, ICT, 바이오 등 핵심 성장사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소재부문 OCI머티리얼과 모듈부문 에센코어 등과 함께 수직계열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디바이스 업체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통합 솔루션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태원 SK 회장은 경영복귀 후 반도체 46조원 투자계획 발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도체 소재기업 OCI머티리얼 인수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에너지 부문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셰일자산 인수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쯤 M&A 건이 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SK E&S 역시 해외 천연가스(LNG) 광구 지분 참여에 적극적이며, LNG 도입 규모를 확대해 차이나가스홀딩스를 거쳐 대중국 LNG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오 부문은 중추신경계 분야 신약을 개발해온 SK바이오팜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추진돼 몸집 키우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해외 스킨십 경영 지원 아래 중국 시노펙, 홍하이그룹, 일본 JX에너지, 스페인 렉셀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지배구조 개편은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올리는 방안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 SK그룹은 부인했지만, 증손회사법에 막힌 SK하이닉스의 M&A 투자전략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News & Issue
--------	----	----	----------	--------------

국내 엔씨소프트 3.7% 최근이슈 엔씨소프트, PC게임시장 모바일의 1.6배

엔씨소프트가 PC온라인 게임시장 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모바일 게임의 1.6배"라는 분석에 강세.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PC온라인 게임의 존재감은 여전히 크다. PC온라인 게임은 국내에서 가장 큰 플랫폼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콘솔에 이어 두 번째 게임 플랫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PC게임 시장은 유저들의 ARPU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이 연간 3%대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발환경이 성숙하면서 타 플랫폼 게임사의 PC온라인 게임시장 신규 진입은 어렵다.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사들이 몰리면서 경쟁환경이 급격히 느슨해져 엔씨소프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신작 PC온라인 게임 MXM이 내년 상반기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글로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30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1월 3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1월 3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역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